

광주일보 12기 리더스아카데미-한민 교수 '달라도 한참 다른 남의 문화 이해하기' 강연

“문화 이해를 통한 다양한 시각 갖는 것이 중요”

과학기술 발달한 우리나라 문명과 풀 옷 입는 아마존은 같은 단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것인지 점검해야



“안녕하십니까. 별종위기 1급, 토종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가 지난 15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단



한민 교수가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12기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달라도 한참 다른 남의 문화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에 섰다. 토종 문화심리학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 '별종위기 1급'이라고 밝혀온 한 교수는 이날 '달라도 한참 다른 남의 문화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미국 Clark University 박사 후 연구원,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한민의 심리학의 숲',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등의 책을 쓴 그는 유튜브 채널 '5분 심리학'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CBS '세바시 15분', tvN '어쩌다 어른'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사람들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문화에 따른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가 문화심리학이다. 한 교수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화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며 문화 이해가 사회 이해,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농경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의 습관, 가치관, 육구체계는 유목 문화를 가진 사람과 다르겠소. 우리가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문화를 의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차이가 나는데 에스키모인들이 ‘눈’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는 십 수가 지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환경은 눈이 생존에 중요한 영향 미치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할 이유가 생겼던 것이죠.” 그는 어떤 문화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싫어하는 가치를 이해하면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며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했다. “세계화가 되면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어요. 1970-80년대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없었지만 요즘 20-30대들은 굉장히 멋있게 외국과도 동등하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맺고.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동등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교수는 문화 이해가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덧붙였다. MZ세대는 둔 부모와 직장 선택 등 세대 차이는 문화의 문제다. 산업화 시대에 교육받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내 커리어와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게 중요하지만, 최근 청년들은 직장에서의 성취보다는 내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 이해를 통한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 교수는 “우리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낯설거나 혹은 잘못됐다 느낀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그대로 바라보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발달한 문명을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낮춰 보는 안 된다는 ‘문화상대주의’를 강조했다. “열등과 우월이 아니라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 문명 수준과 아마존에서 풀로 만든 옷을 입는 사람들의 문명 단계는 같습니다. 우리가 더 발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이 진화론적인 인식입니다. 문화상대주의에서는 우리의 단계와 그들의 단계는 동일한 것이죠.” 한민 교수는 헐리우드 영화나 CNN 등 우리가 세계를 보는 창이 서구의 눈에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잘 생긴 사람을 ‘조각 미남’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서양의 시선이다. “이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여왔던 수많은 정보들이 서양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은연중에 서양 문화가 더 고급스럽다고 인식합니다.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껏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정보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것인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한편, 광주일보 제12기 리더스 아카데미 다음 행사는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동구센트럴키즈어린이집 '성평등한 성교육' 부모교육

광주 동구 센트럴키즈 어린이집(원장 송선화)은 지난 15일 '양육자 성평등한 성교육'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구센트럴키즈 어린이집이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신청해 이뤄졌다. '양육자 성평등한 성교육'은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법, 양성평등 교육법, 성 고정관념 요소 인식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며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송 원

장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올바른 성교육을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어린 나이일수록 성 고정관념을 빨리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일상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치료 마친 푸른바다거북 방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김충남)이 지난 15일 여수 돌산읍의 해양수산과학관에서 구조한 후 치료가 끝난 푸른바다거북을 여수 금오도 해상에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방생한 푸른바다거북은 지난 6월 정지랑에 환희, 어업인 신고를 받고 해양수산과학관에서 출동해 구조했다. 이번 바다거북 방생 행사에서는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외에도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아쿠아플라넷

(여수)이 푸른바다거북 3마리를 방생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GPS 부착 등 생태계 연구를 위해 동참했다. 3개 기관은 향후 바다거북 생태습성 연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충남 원장은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여러 기관과 협심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황인성·최선희(베스트디자인연구소대표)씨의 차남 명하군, 서한규·조영선씨의 차녀 보영양=19일(토) 오후 4시 플라데이션 광주호텔 3층 로즈룸.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사·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

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 고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의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

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 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

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모집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산청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산청동 대광로제비마을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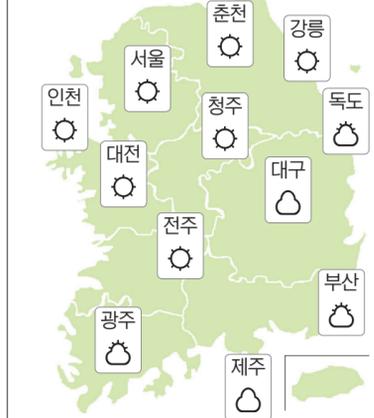
해돋이	06:40	달뜨기	17:41
해질	17:55	달짐	06:03

감기조심하세요

낮밤 기온차 10도 내외로 크겠다.

광주	구름많음	16/25	보성	흐림	14/24
목포	구름많음	17/25	순천	흐림	16/26
여수	흐림	19/24	영광	맑음	14/26
나주	구름많음	14/25	진도	구름많음	15/25
완도	흐림	18/26	전주	맑음	16/26
구례	구름많음	14/26	군산	맑음	15/25
강진	구름많음	16/25	남원	구름많음	14/24
해남	구름많음	15/25	축산도	구름많음	19/24
장성	구름많음	14/2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5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서)	1.0~2.0	1.0~2.0
	면바다(동)	1.0~2.0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57 19:18
여수	02:24 14:42	08:43 21:00

◇생활지수

미세먼지	보통
------	----

◇주간 날씨

18(금)	19(토)	20(일)
17/25	17/22	11/20
21(월)	22(화)	23(수)
12/22	17/21	13/22

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물레너지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